

기고

박종열 나주경찰서장



내부고객 만족은 외부고객 만족 위한 필요조건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문화'와 '비투 운동'으로 인하여 조직 내 상·하간의 불통(不통)을 해소하고 양성간의 평등 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인사·성과·복지·조직문화·의사소통 등 전 조사 분야에 걸쳐 전남청 내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조사(전남청 1위, 전국 5위)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이점득심(耳聽得心)의 효율적인 소통채널

의 가동과 더불어 내부(직원) 만족이 곧 외부(주민) 만족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1위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슈츠(Howard Schultz)는 "스타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는 우리 직원들이다. 회사가 직원들을 돌보면 직원들은 저절로 고객을 돌볼 것이다"라고 했다.

높은 내부 만족도는 양질의 경찰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들의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이 갖춰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치안역량임을 각인하고 조직의 내부만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社說

인터넷 거래 신중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용품 판매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니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가용품·여름 가전제품 등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476건 가운데 37%(177건)가 7~8월 장 많았고 이어 에어컨·선풍기 등 여름 가전제품 48건(27.1%), 여행상품 29건(16.4%), 숙박권 22건(12.4%),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6.8%) 등 순이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 관심을 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수기 숙박업소나 물놀이 시설을 예약하지 못한 이들이 조금 한 마음에 '답하게 이용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면 이용권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해 돈을 받아 가로

채는 수법도 있다.

지난해 7~8월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캠핑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32명에게서 1억2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찰청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캡'에 판매자 전화·계좌번호를 입력해 사기 피해신고 이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판매자는 의심해야 한다.

사이트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에서는 가급적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다.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URL)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전결제 사이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품 거래는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 만나 직접 물품 상태를 살펴본 뒤 문제가 없을 때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장마철 주의해야 할 질환들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장마철에 특히 많이 생기는 질병들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장균 등 유해한 바이러스들이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특히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음식물 보관 및 섭취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막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은 후 오래 방치한 후 다시 먹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 또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고 복통, 배탈, 설사를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다.

장마철에 특히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고 개인위생에도 철저해야 한다.

평소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있는 경우 장마철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기압의 변화로 관절 부위가 부풀어 오르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여름철에 사무실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켜 경우 외부온도와 실내온도 차가 많이 생기면서 무릎, 발 등이 붓거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에어컨을 틀 경우 50 정도 가

동하면 5분 정도 끄고 환기를 시켜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마철에는 무좀이 있는 사람은 더욱 상태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여름에 재발하기도 한다. 치료는 주로 바르는 약을 쓰는데 2~4주 정도 바르면 증상이 호전된다.

이 때 약 바르는 것을 중단하면 재발 확률이 높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증상이 호전돼도 일정 기간 계속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바르는 약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 먹는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장마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면 수족구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

특히 5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잘 감염이 된다. 허나 구강 등에 큰 깨알이 생기고 음식을 잘 못먹는 특징이 있다.

아이가 손, 발바닥에 반점이 생기고 발을 잘 못 먹으면 일단 유치원 등에 보내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형필 /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

빗길 안전운전, 예방이 중요하다

장마철이 되면 차량관리 소홀 및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마철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중이 연평균 18% 증가했고, 사망자 수 비중은 12.6%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운전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빗길 교통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운전요령을 숙지하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평소보다 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급정거 시에도 앞이나 뒤차와 추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빗길운전은 타이어나 노면 사이의 마찰력이 낮아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므로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두는 것이 좋다.

둘째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비가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어둡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돕고 동시에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자동차와 앞차에게 내 자동차의 위치와 존

재를 알릴 수 있다.

셋째 빗길 운전 시 감속운행을 해야한다. 폭우 시에는 가급적 운전을 안하는 것이 좋지만 꼭 해야한다면 감속운행하는 것이 좋다.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행속도를 약 20% 감속해서 운전하여야 한다.

넷째 자동차 와이퍼 및 배터리 점검을 해야한다. 집중호우처럼 폭우가 내리는 날에 와이퍼가 작동 안 하면 매우 당황스러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야확보를 위해 되도록 이면 와이퍼를 세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고, 장마철에는 에어컨이나 전조등, 와이퍼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예방수칙을 제대로 준수 한다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 안전운전으로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빗길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운행을 되길 기대해 본다.

이효정 / 영광소방서 소방사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淨 涓 據 涇

淨 涓 據 涇

▷ 뜻: 위수(渭水)에 뜨고 경수(涇水)를 눌렀으니, 장안(長安)은 서북(西北)에 위수(渭水), 경수(涇水) 두 물이 있음.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happiness.